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12. 28.(월) 17:00 (총 5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한윤덕 주무관 함인화
		전화번호	033-650-0347

연말연시 강추위 - 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-

- 12월 29일 밤~1월 1일 한파,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
 - 강원내륙과 산지 체감온도 -20℃ 안팎, 1월 초순 강추위 지속
 - 건강관리·수도관 동파 유의, 장기간 이어지는 추위 대비 필요
- 강원동해안 장기간 건조특보 지속
 - 산불을 비롯한 화재예방 철저!



[12월 30일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신동현)은 내일(29일)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내륙과 산지에 눈 또는 비(강원동해안 비)가 내린 후 연말연시(30일~1월 1일) 동안 강한 한파가 나타나겠다고 밝혔다. 또한, 강원동해안은 11월 28일(토)부터 31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 한파와 산불을 비롯한 화재예방과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강원지방기상청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12월 29일(화) 밤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강한 한파를 전망했다.
 - 29일 밤부터 대륙고기압에 의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, 12월 30일~1월 1일은 5km 상공에 -30℃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추위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.
 - 이후, 1월 2(토)~3일(일)은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, 4일(월)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월 초순에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.

[추위 전망]

- 29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, 30일~1월 1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내륙과 산지는 -18 ~ -9℃, 강원동해안 -10 ~ -5℃ 안팎을 보이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.
- 특히, 30일은 강원도의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, 31일(목)은 아침 최저기온이 철원 -18℃, 그 밖의 강원내륙과 산지 -15℃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.
- 또한, 이 기간(12. 30.~1. 1.) 동안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~10℃ 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
-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함은 물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했다.
-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약해지겠지만, 4~5일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고, 이후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.
-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.”고 당부했다.

- 또한, 29일 강원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이후에도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다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.

<12월 29일의 예상적설 / 강수량>

- 예상 적설(29일 오후(12시)부터 밤(21시) 사이)
 - 강원내륙과 산지: 1~5cm
- 예상 강수량(29일 오후(12시)부터 밤(21시) 사이)
 - 강원도: 5mm 내외

[강풍과 건조 전망]

- (강풍) 30일 오후부터 강원산지에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을 예상했다.
 -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- (건조) 11월 28일(토)부터 31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진 강원동해안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다.
 - 특히,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각종 화재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.

[풍랑 전망]

- (파도) 동해중부먼바다는 29일(화) 밤부터 35~60km/h(10~16m/s)의 강한 바람과 함께 2~5m, 동해중부앞바다는 30일(수) 새벽부터 32~50km/h(9~14m/s)의 강한 바람과 함께 1.5~3.5m의 매우 높은 물결을 전망했다.
- 동해중부전해상의 강한 바람과 물결은 1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
- 특히, 동해상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했다.